

# KNOW 위클리

weekly.knou.ac.kr  
평생교육의 미래를 만듭니다

친구야 같이  
학교 가자!



주변 지인들에게 방송대를 선물하세요.

이번 홍보특별 32호는 방송대 학생모집  
특집으로 구성되어, 일반·동문·재학생  
일부에게 제공됩니다.

홍보특별 32호 2026년 6월 8일 월요일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Weekly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 ✓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국립 4년제 원격대학
- ✓ 고등교육 전문체널(방송대학 TV, OUN)로 TV강의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평생교육대학
- ✓ 전국 곳곳에 지역대학 등 현대면 교육체제를 갖춘 국내 유일한 전국권 대학
- ✓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실시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좋은 대학
- ✓ 교수진과 강의 및 교재의 우수함과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대학

- ✓ 1972년 개교하여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지역의 졸업생 85만명 배출, 재학생 9만명 보유, 94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인적네트워크를 가진 대학
- ✓ 5급 이상 공무원 출신대학 1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 1위 대학
- ✓ 등록금이 국내 대학 중 가장 저렴한 대학 \* 일반대학 10분의 1, 사이버대학 4분의 1 수준
- ✓ 매년 약 40%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대학
- ✓ 자퇴, 제적된 학생들이 다시 입학하는 재입학생과 졸업 후 다시 입학하는 편입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대학
- ✓ 국내의 대학에게 강의콘텐츠와 원격교육의 기술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원격대학



24개 학과와 함께  
커리어업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학사 학위



국내 유일  
국립 원격대학



13개 지역대학  
U-KNOU캠퍼스



한학기 30만원대  
등록금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 6. 8.(월) ~ 7. 7.(화)

**KNOU**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77-2853  
knou.ac.kr



# 학생모집

방송대에 입학할 결심

## 새로운 지식 배우며 자신감 얻고, 인생 전성기 한 번 더!

방송대(총장 김종오)가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방송대에는 10대부터 90대까지 거의 전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방송대를 찾은 걸까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전공지식을 심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루지 못한 학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또 다른 자신만의 목표를 위해서겠지요.

**졸업생들은 '지식'과 '전공' 중요시해**  
먼저 방송대를 찾는 이에게서 힌트를 얻기 위해 원격교육혁신연구원(원장 조경훈)이 지난 2월 발표한 「방송대 졸업생의 학습성과 분석: 2021~2024학년도 졸업생 실태조사」(과제책임자 김명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눈에 띕니다. 4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 졸업생의 입학 이전 최종 학력은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일반대학·방송대 및 대학원 석사 졸업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학위가 있으면서도 다시 대학을 찾는,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번엔 처음 실시한 근무유형 조사에서는 전일제 근무자가 무려 66.3%, 시간제 근무자 16.2% 순이었으며, '직업 없음'으로 답한 졸업생은 17.5%였습니다. 방송대 교가 한 구절인 '일하면서 배우는 보람찬 나날~!'이 숫자로 증명됐다고 할까요? (표 참조)

졸업생이 방송대에서의 학습 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고 인식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형 문항에서는 '지식'과 '전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자신감', '자격증', '직무 경



졸업생이 방송대에서 학습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를 분석해 상위 빈출 50개 단어를 추렸다.

험' 등의 문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대에서의 학습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주로 새로운 지식과 전공지식의 습득, 이해의 심화와 같은 인지적 학습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제부터는 <KNOU위클리>가 만난 방송대 학우, 동문들의 내밀한 이야기들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40대 나경수 동문(농학)은 아파트에 틀어박혀 낮과 밤이 바뀐 채 온종일 게임만 하면서 30대를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리)'로 보냈습니다. '흙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아버지 말씀에 부모님 농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출근길에 스마트 온실이 눈에 들어왔대요. '나라고 저런 거 못 할 건 없잖아?'라는 생각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으로

지원했습니다. 20개월 간 이론 교육부터 재배 실습까지 하면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방송대 농학과에 편입했어요. 학생회, 스터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스마트팜 창업해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김민욱 동문(컴퓨터)은 건축업 때문에 예고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공부 기초가 부족한 그에게 담임교사는 지방대 물리치료 전공을 권했죠. 평생 꿈이랑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해외를 오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IT분야로 진로를 정했대요. 고교 졸업 후 PC방대 상 컴퓨터를 조립하다가 데이터에 관심이 생기면서 컴퓨터학과를 찾았습니다. IT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실천했고, 27세 나이에 굴지의 글로벌 M7 기업 중 한 곳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영양사로 안정되게 일하다가 전업주부가 된 박선미 동문(교육)도 있습니다.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였던 그는 잊었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교육학과에 편입하면서 되살렸습니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동기들과 '논문 원정대'를 결성했고, 박사 과정까지 직진했습니다. 평생교육사로 활동하면서 '성인용 디지털 시민성

척도(A-DCS)'를 개발했고, 이 측정 도구는 경단녀의 재취업을 돕는 각종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20년 차 영어 강사였던 김나영 원우(에듀테크학과 24학번)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AI가 빠른 속도로 교육사업을 재편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창업을 목표로 대학원 에듀테크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게임 '베리사'를 런칭했습니다. K-pop, K-drama로 한국어에 관심이 생긴 외국인들이 교재 위주의 학습에서 겪는 불편함을 파악해, 게임으로 익히도록 한 거죠. 창업 과정에서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됐고, 공모전 수상도 여러 건이래요. 현재 유료구독자 1만 명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방송대와 인연을 맺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방송대인들의 이야기는 차고 넘칩니다. 방송대 (편)입학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지원해 보세요. 포대를 만날 수도, 인생 선배님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학우, 동문들처럼요.

**방송대 (편)입학을 위해 준비할 것들**  
방송대가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1학년 신입생은 4만1천585

명, 편입생은 2학년 3만7천524명, 3학년 4만2천356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8일(월)부터 7월 7일(화)까지입니다. 지원만 하면 (편)입학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업성적을 따져서 엄격하게 '성적균별 성적순'으로 선발하거든요 (동점자 발생시 전형위원회 별도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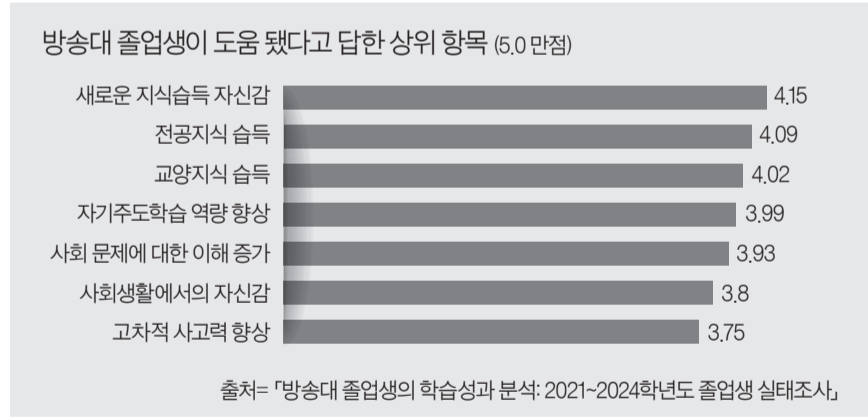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된다면 신입생으로,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나 4년제 대학교 1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된다면 편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준비하세요(사회복지학과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편입생이라면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지원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PC나 모바일로 방송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고, 학교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지원서 작성 후에는 전형료(1만5천 원)를 납부하고, 최종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평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두구두구! 합격자 발표는 7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에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학안내, 합격자 조회 순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나흘간, 7월 30일(목)까지 해야 합니다. 등록을 포기한 합격자가 생길 경우,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8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처장은 방송대 (편)입학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배움에는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의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합니다.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명실상부' 방송대에 (편)입학할 결심, 하셨나요? <KNOU위클리>도 새로 만날 여러분을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방송대 예비 지원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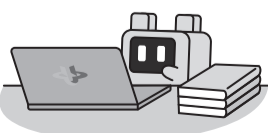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국립 4년제 원격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대는 1972년 개교한 이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85만 명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지난 54년간 축적한 최첨단 원격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전국 13개 지역대학과 2개 학습센터, 그리고 22개 시·군 학습관을 통해 전국을 하나의 캠퍼스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립 원격대학입니다.

특히 한 학기 30만 원대의 합리적인 등록금과 매년 40% 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학내외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거주학생 모집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방송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튜터링, 1:1 멘토링 제도, 학과 스터디, 경연대회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대학입니다. 앞으로 우리 방송대는 최첨단 원격교육 노하우에 AI 혁신을 더해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방송대가 열거할 새로운 미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생모집 안내: 2026. 6. 8.(월) ~ 7. 7.(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김종오

# 학생모집

방송대 54년의 여정

## ‘고등·평생·원격교육’ 세 기둥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반세기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느라 분주한 3월 9일에 54번째 개교기념일을 맞이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고등’, ‘평생’, ‘원격’이라는 세 기둥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든든히 떠받쳐 온 방송대의 첫 모습은 결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방송대가 뚜벅뚜벅 걸어왔던 눈부신 54년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알게 된다면, 서로 다른 이유로 찾아온 방송대에 대한 애정이 솟아날 것도 같다. “어디를 가든 내 인생을 바꾼 대학이라고 자랑한다”라는 85만 동문 선배의 고백처럼 말이다 (『방송통신대학교 50년사』, 『총장 경영백서』 참고).

### 아시아 최초의 개방대

1971년 영국개방대(Open University of United Kingdom) 설립을 효시로 1970년대에는 세계 각지에서 유사한 성격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출현했다. 대한민국 문교부(현 교육부)는 아시아 최초의 개방대를 설치한다는 포부로 1968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내 최초의 원격교육 대학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교부는 서울대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거쳤고, 서울대는 방송통신대학 설치 위원회를 발족했다. 방송통신대학 설치를 위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신임 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1972년 1월 8일 서울대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준비사무소를 열었다. 3월 9일 설치령과 학칙을 동시에 공포

하면서 역사적인 방송대 개교를 맞았다. 개교 당시 방송통신대학 교사는 서울대 치과대학 내구 보건대학원 건물이었다.

가정학과, 경영학과, 농학과, 초등교육과, 행정학과 등 2년제 초급대학 과정 5개 학과로 방송통신대학이 문을 연 것이다. 당시 입학 정원은 1만2천 명이었고, 경쟁률은 4.66:1이었다. KBS 제3방송과 MBC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강의를 실시했다. 개교 두 달 뒤인 5월에 방송대 학보 <통신학보>를 창간했고, 이듬해 9월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에 1개면을 할애받아 ‘방송통신대학관’ 1호를 발행했다. 학보사 창립은 1977년 2월에 이뤄졌다.

### 10년 만에 학부대학으로 승격

10년 동안의 성공적인 교육적 실험과 성과로 방송대는 1982년 서울대로부터 분리해 독자적인 국립원격대학 체제로 전환됐다. 2년제 초급대학 과정에서 5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승격됐고, 이는 10년 뒤인 1992년에는 4년제 학사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추진 동력이 됐다. 1982년에는 학생들의 교재를 제작하는 출판부를 설립했다.

왜 5년제였을까? 원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라디오 방송강의와 출석 수업 만으로는 4년 안에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전임 교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그 이유였다. 의도와는 달리 방송대 5년제 학사과정이 일반 4년제보다 질적으로 떨어

어진다는 그릇된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며 방송대는 1990년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1993년 5개 단과대학(인문, 사회, 자연, 교육, 교양교육)을 정비해 마침내 종합대학으로서의 체제를 완성했다. 단과대학 개념이었던 ‘한국방송통신대학’이란 명칭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바뀌었다. 1996년 케이블TV 채널인 방송대학TV <OUN>을 개국해 원격 영상강의 시스템으로 원격교육의 새 장을 열었다.

학위 과정이 변하면서 학생도 늘었다. 2년제 초급대학 과정 시절(1972~1980년)에는 1만8천명 수준이었는데, 5년제 학사과정 시절(1981~1991)에는 10만6천634명으로, 4년제 학사과정으로 전환한 시절(1992~2001)년에는 15만3천873명으로 재학생이 폭증했다.

급증한 학생의 교육 수요를 협력학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1983년 인천지역학습관 개관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충북, 경남, 전북지역 등 여러 광역지역에 학습관을 개관했다.

2000년대 이후 IT 강국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개인용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방송대 원격교육 시스템은 전환기를 맞이했다. 사이버대가 급속히 성장했고, 일반대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방송대는 대학 이념을 재정립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했다.

### ‘원격·평생학습 메카’로의 재정립

당시 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첫

째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신입생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데 반해, 전문학사 이상의 편입생은 1990년 3만 명에서 1998년 5만3천여 명으로 급증해 1학년 신입생 수를 초과했다.

둘째는 방송대생의 고령화, 고학력화 추세다. 1993년 25세였던 재학생 평균 연령은 2013년 39세로 높아졌고,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 전업주부, 교원·교육 행정직, 공무원 순으로 대다수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전업 학생이었다. 편입생 비중이 높아지면서 4년제 학사 소지자의 비율은 2000년 12%에서 2013년 2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셋째는 지속적 생애 역량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수요가 증대했다는 점이다. 못다 한 학업의 꿈 실현이라는 전통적인 학습 요구보다, 지식에 대한 내재적 관심 혹은 현장 실무형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바로 방송대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었다. 이는 개방성, 다양성, 전문성, 나눔과 연대라는 핵심가치로 방송대가 추구해야 할 ‘비전 2022’에 담겼다.

###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

2012년 학위-비학위 연계형 프라임칼리지 신설은 원격 평생학습의 허브인 방송대가 차세대 대학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첫째로 4050세대의 생애주기 및 학습 요구에 맞는 제2의 인생 설계·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공헌을 확대한다는 점, 둘째로 특성화고 등 고졸 재직자의 계속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친화형 계속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 서다.

2020년 팬데믹으로 대내외적 교육환경이 급속하게 변했다.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방송대는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전환점에 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평생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비전 2032’의 지향과 구축으로 이어졌다.

현재 방송대는 말레이시아, 우간다 등 세계 곳곳에 방송대의 우수한 원격교육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AI-에듀테크융합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자유전공 학부를 신설해 2026년 2학기부터 해외 유학생 유치에도 나선다.

방송대 역사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예비 지원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방송대학보 <KNOW 위클리>(www.weekly.knou.ac.kr)를 방문해 더 생생한 방송대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길 권한다.

(위클리) 282호 수정·보완

기반구축 1972~1980	체제확립 1981~1990	확장발전 1991~2000	정착 및 내실화 2001~2016	전환기 2016~2025
1972.03 한국방송통신대학 개교 서울대학교 부설의 최초 국립 원격대학	1981.02 초급대학 과정에 5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 1982.02 서울대학교에서 분리독립, 학보사 설립 1984.05 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술진흥재단 설립	1991.12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 1996.09 방송대학 TV(OUN)개국 1997.05 평생교육원 설치 2000.05 종합교육연수원 개원	2002.11 제16회 아시아 개방대학 협회 컨퍼런스 개최(AAOU) 2005.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단과대학 체제 구축) 2007.03 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2009.06 역사기록관 설치 2009.10 교양교육원 설치 2010.12 평생대학원 정원 증원 및 학과	2016.07 국제협력단 발족 2018.02 콘텐츠 포털 시스템 '유노(U-KNOU) 캠퍼스' 구축: PC, 스마트폰 강의 제공 2019.02 제20대 국회 '방송대 특별법, 입법 발의' 2019.07 열린관 개관식 및 종합상담 시스템 재구축 개통식 거행
2020.06 문체부행 시스템 및 온라인 시험센터 구축 2020.07 하계 계절수업 시험 태블릿 PC로 최초 실행 2021.0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 안양시학습관 개관식 2025.05 제11회 'I LOVE 방송대 마라톤 축제'				



2001년 원격강의 듣는 학생들



2007년 전국 총학생회 출범식



2007년 6월 3일 'I LOVE 방송대 마라톤 축제'



2013년 10월 9일 광주·전남 총장축제



2020년 5월 16일 전국총동문 산악회 사산제

# 학생모집

방송대 사람들

## 어제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의 꿈은 한계가 없다

프랑스 파리 제10대학 교수를 지냈던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1906~1995)는 타인의 얼굴을 가장 신비로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얼굴의 현현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송대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격교육기관'이란 교육 형식적 측면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세대의 다양성, 전 연령대 학우들이 배움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송대학보 <KNOU 위클리>는 매주마다 전국의 학우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외재학생도 만납니다. 나이 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양합니다. 20대의 장운서 학우(생활과학부), 80대의 신숙자 동문(교육)과 유대길 학우(보건환경안전), 50대의 천성실 동문(경영), 전국총학생회장을 지낸 방송대발전위원회 이사인 김교호 학우(농학),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60대 이숙영 학우(영문)가 그 주인공입니다.

**더 많은 학우, 동문의 스토리를 찾아서**  
이분들은 방송대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하나의 빛줄기에 해당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채로운 빛줄기로 '얼굴'을 드러내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먼저 이분들을 만난 것이죠. 혹시라도 '얼굴'과 사연을 보시고, 본인의 얼굴과 사연을 알려주신다면 어디든 열심히 뛰어가고 싶습니다.

"방송대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반짝이는 열정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장운서 학우의 꿈은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갖는 것이죠. 올해 27세인 그는 남들이 다 가는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등록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을 경제적 독립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다행히 계획한 대로 풀리면서, 좀더 전문적인 공부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됐고요. 물론 그의 자발적 의지이지만, 여기에는 30년에 걸쳐 6개 학과를 졸업한 부친(장창호·보건환경안전)과, 20년에 걸쳐 8개 학과를 졸업한 작은아버지(장웅상·국문)의 영향도 큼니다.

2대에 걸쳐 방송대에 적을 둔 이들은 많지만, 장운서 학우처럼 50년이라는 시간이 응축된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아



**자신만의 '얼굴'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담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방송대인, 이들이 바로 '빛나는 방송대의 얼굴'입니다.**

버지와 작은아버지 모두가 방송대에 재학 중인 이들 '장씨 가족'의 꿈은 '가족 함께 방송대 생활 70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딸이 그 70년 역사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과연 장 학우는 어떤 꿈을 품고 이 도전에 합류했을까요?

방송대 공부라는 장대한 물결에 도전하는 이들 가운데는 고령의 학우들도 무척 많습니다. 올해 2월 학사모를 쓴, 87세의 신숙자 동문은 "배움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멈추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젊어서는 그저 먹고사는 데만 급급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방송대라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라고 말합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방송대를 만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다는 뜻이죠.

신 동문은 70대 후반에 야학을 만나 공부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 주저 없이 방송대의 문을 두드렸는데, 처음에는 문화교양학과에 입학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또

다른 학문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3학년에 올라가면서 교육학과로 전과를 결정했죠. '교사'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을 학문적으로나마 이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월에 졸업한 그는 조금 숨을 돌렸다가 다시 방송대에서 새로운 공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암과 싸우면서 동료 학우들 위해 봉사**  
방송대를 찾은 고령의 학우들 가운데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동료나 후배들을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80대 초반의 나이에 암과 싸우면서도 학우들을 위해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안산학습관의 유대길 학우는 "공부는 사회와 소통하는 통로이자 인생의 완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스테디가 있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학습관에 도착해 강의 준비를 하고, 학우들의 안부를 챙기며 학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익숙지 않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과제 제출, 온라인 강의, 시험까지 스스로 해내며 '포기하지 않는 공부'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죠.

그의 솔선수범은 동료 학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사와 직장, 학업을 병행하며 포기하고 싶어 하던 한 여학우가 "직장과 가사일, 어려운 공부로 힘들어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때도 유학우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흔히 '방송대 85만 동문'이라고들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수

도 있습니다. 방송대 동문들도 '방송대 DNA'를 분명하게 지녔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게 그 방증입니다. 홀로 킬리만자로산 등반에 나서서 최고봉 우후루 피크(5,895m)에 우뚝 선 천성실 동문도 그렇습니다. 고교 시절 자신에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그의 삶은 이를 극복하는 데 집중됐고 이후 방송대를 만나 그의 삶은 새로운 전환을 맞았습니다.

1994년, 직장을 그만두고 삶의 방향을 겪던 시기에 선택한 방송대 경영학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는 학과 스터디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방송대는 그에게 '실패해도 괜찮은 연습의 장(場)'이 돼주었습니다.

**오래된 소망, 꿈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  
천 동문에게 킬리만자로산은 10대 시절부터 품어온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새겨진 아프리카 최고봉의 이미지는 고독한 내면과 야망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산악인 고미영 대장의 일기에서 얻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일에 관연돼 살아가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라는 울림은 50대에 접어들어 그에게 '지금 아니면 안 될 이유'가 됐습니다. 그의 킬리만자로산 등정에는 그런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전국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발전위원회 이사로 참여하면서 학교 발전을 모색하는 김교호 학우는 "방송대는 저에게 '제2의 청춘'을 선물했습니다"라고 말합

니다. 그런 그에게는 이색 비하인드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죠? 맞습니다. 미디어영상학과와 생활체육지도학과를 졸업한 뒤 다시 농학에 진학한 김 학우는 김스홀스앤컬처 대표로, 말[馬]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tvN의 인기 드라마 「폭군의 셰프」 승마감독으로도 활동한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의 애마 '블랙스타'가 바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던 말이죠. 그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단단합니다. 학문과 현장을 잇는 다리로서 방송대의 교육적 가치와 승마산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기여하는 것, 이것이 그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제2의 청춘'을 선물해준 방송대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현장에서 그 지식을 실천하며, 다시 학교에 기여하는 김교호 학우와 그의 파트너 블랙스타의 도전이 어떤 서사를 더 써내려 갈지 기대됩니다.

**해외에서도 가능한 방송대 공부**  
방송대출판문화원은 해마다 '방송대문학상' 현상 공모전을 엽니다. 올해는 50회가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한데요, 바로 지난해 제49회 방송대문학상 공모전 '에세이 부문'에서 당신의 영예를 안은 이숙영 학우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해외재학생'으로 문학상에 도전했는데, 그의 방송대 공부와 글쓰기 기원에는 8시간 넘게 대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재활 훈련을 거치면서 발 견한 '희망'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학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대는 제가 수술 후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잊게 해준 진통제 같은 곳이죠.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모습도 보고, 귀로만 듣던 강의를 눈으로 보며 메모하며, 언제든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어서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공부할 때는 이상하게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보니, 방송대 덕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싶게 됐다는 걸 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와 직업, 사는 곳은 저마다 달라도 방송대 사람들은 자신만의 '얼굴'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빛나는 방송대의 얼굴'이라고 호명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위클리) 홍보특별 31호 수정·보완

###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학생	모집인원	모집기간	지원자격
신입생	1학년 41,585명	6. 8.(월) ~ 7. 7.(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자
편입생	2학년 37,524명 3학년 42,356명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자/대학교 1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자

지원방법		
지원서작성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PC·모바일)
	방문	학교 방문하여 온라인 지원서 작성
전형료 납부	전형료 15,000원 납부	
부속 서류 제출	인터넷 첨부 또는 우편(방문) ※ 대학본부(열린관 105호), 13개 지역대학, 2개 학습센터, 22개 학습관	

모집학과(24개)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중어중문학과/프랑스어문학과/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법학과/행정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미디어영상학과/도시콘텐츠·관광학과/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대학	농학과/생활과학부(가정복지상담학, 식품영양학, 의류패션학)/컴퓨터학과/통계·데이터학과/보건환경안전학과/간호학과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유아교육과/문화교양학과/생활체육지도과

제출서류	
신입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사회복지학과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편입생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학위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	
합격자 발표	7. 27.(월) 09:30~
등록 기간	7. 27.(월) ~ 7. 30.(목) ※ 금융기관 수납 가능 시간 내

입학상담 (평일 09:00~18:00)  
**1577-2853**

# 학생모집

방송대에 도전하려는 중장년에게

## 인생 티핑포인트, 다시 빛나는 전성기를 만들려면?

방송대 원격교육혁신연구원에서 올 2월에 내놓은 「2024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과제책임자 이솔비)에 따르면, 방송대 재학생의 평균 연령은 2024학년도 1학기의 경우, 30대가 24.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50대 23.4%, 40대 22.7% 순이었다. 2024학년도 2학기의 경우, 역시 30대가 24.4%로 가장 높고, 이어서 50대 23.3%, 40대 23.0% 순이었다.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봐도 30대와 50대 이상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대학보 <KNOW 위클리>는 50대에 주목해, 이 '50대'가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기회'의 시간대이며, 인생의 빛나는 전성기임을 살폈다.



지 않는다. 즉, 성인중기의 지적 능력 중 사회 환경과의 교류에서 축적된 사고력, 판단력, 문제해결력 등의 능력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40세에서 60세 사이인 성인중기가 '사회 환경과의 교류에서 축적된 사고력, 판단력, 문제해결력'이 증대되는 시기라는 전문가의 진단은 50대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딱 좋은' 연령대임을 말해준다.

### “나는 두 번째 전성기를 살고 있다!”

다시 『내 인생의 빛나는 시간 오십, 당신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된다』로 돌아와 보자. “50대의 꿈에는 특별한 동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이다”라고 말하는 저자는 “첫걸음을 내디뎌라. 꿈은 생각만으로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 작은 행동, 첫걸음이 필요하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책 한 권을 읽든, 수업을 신청하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든,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기 시작하라”라고 권유한다.

방송대를 선택한 50대 이상의 학우들은 그 ‘첫걸음’을 내디딘 이들이다. 그렇지만 ‘뒤늦게 공부해 왜 하나?’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고 토로한다. 그 말에 흔들리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소의 뿔처럼 자신의 길을 간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 동문은 경찰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인생 2막을 시작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그가 선택한 삶은 중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가 그의 발걸음을 묶었지만, A 동문의 꿈까지 멈추게 하진 못했다. 그는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현재 대형 로펌의 경찰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도장 운영을 그만두고 귀국해서 배움의 길을 택했죠.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입학은 포기가 아니라 재도약의 선언이었어요. 길을 잠시 돌아갔을 뿐, 방향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다들 ‘50대에 새로운 도전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50대는 경험을 무기로 들고 다시 뿔 수 있는 두 번째 전성기라고! 경찰에서 태권도로, 태권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방송대 공부로 이어진 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꿈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위클리) 273호 수정·보완

### 50대는 희망이 담긴 무채색 세대?

일과 직장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온 세대일수록 자신의 일터에서 물러나는 ‘퇴직’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삼기 마련이다. 게다가 퇴직을 앞둔 생물학적 연령대인 ‘50대’를 우리 사회는 ‘밝고, 희망차고, 설렘을 가득 안은’ 모습과는 거리가 먼 ‘서글픈 운명과 현실’로 채색해왔다. 50대가 20대와 달리 ‘무채색’ 또는 ‘희망 없음’으로 인식되는 데는 이런 사회적 편향이 작용한다. 과연 50대는 모든 희망이 담긴 무채색의 세대일까?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이들 50대의 모든 육체적·정신적·사회적 활동이 ‘늪사 상태’에 돌입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30년 간 금융 전문가로 살다가 퇴직 후 50대를 맞아 새로운 전성기를 살겠다고 선언한 최재필 박사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8월 『내 인생의 빛나는 시간 오십, 당신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된다』(작품미디어)를 출간한 그는 ‘가정에선 외로운 아버지, 직장에서 뒷안길로 밀려나는 선배, 사회에선 말 안 통하는 끈대 아저씨로 여겨지는’ 50대에게 마치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쳐다 준 신화 속 영웅 프로메테우스처럼,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주문한다.

그는 50을 가리켜 ‘새로운 인생의 티핑포인트’라고 말한다. 그에게 50대는 하강기가 아닌, 새로운 출발이다. 어느 날 그는 종로의 한 서점에서 ‘은퇴 후 생활’, ‘노후 준비’로 가득한 서적을 보면서 깊은 실망감과 함께 50대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깨

달았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열정과 불안을 겪고 있는 수많은 50대들을 위한 탐색에 나섰다.

그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50(오십)’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꿨다. 그가 보기에 50대의 삶은 ‘균형의 미학’이 있는 삶이다. 충분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여전히 불타오르는 열정 사이의 균형, 현실적 제약과 무한한 가능성 사이의 균형, 이 절묘한 균형점에서 있는 50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인생의 티핑포인트’로서 50대를 전성기로 만들려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그의 30년 경험치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조언을 요약하면 이렇다(사실, 이 조언은 50대만 주요한 게 아니라 30~40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50에 당신의 주변을 다 바꿔라. △나아 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태워버려라. △50의 삶에 창조성을 끌어들이라. △지금 혼자서 이 순간을 살아가. △50 이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성공한다. △50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라. △온라인 네트워킹 역량을 키워라.

### 50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

“50은 인생의 전반부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이 여정에는 정해진 지도가 없다. 남들이 그려놓은 성공의 경로를 따르는 대신, 이

**50대를 전성기로 만드는 행동**

- ☑ 50에 당신의 주변을 다 바꿔라.
- ☑ 나이 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태워버려라.
- ☑ 50의 삶에 창조성을 끌어들이라.
- ☑ 지금 혼자서 이 순간을 살아가.
- ☑ 50 이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라.
- ☑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성공한다.
- ☑ 50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라.
- ☑ 온라인 네트워킹 역량을 키워라.

제 우리는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때로 두렵고 불확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가능성이 숨어 있다.”

저자가 제시한 행동 지침은 결국 ‘공부’와도 직결된다. 나이 들어갈수록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는 게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AI로 인해 산업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방송대 교육학과와 대학원 평생교육학과를 졸업한 최수정 KNOU 평생교육사협회장의 말도 경청할 만하다.

“AI 확산으로 직무 구조가 빠르게 바

뀌고 있지만, 50대는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50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을 ‘경험 기반의 문제해결력’과 ‘사람을 다루는 역량’이라고 봅니다. AI 시대에 중요한 능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을 던지는 힘입니다. 이 역량은 50대가 살아오며 가장 많이 축적해온 자산이기 때문에 돌봄·사무·서비스뿐 아니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학습자 멘토링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 회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기획해 평생교육사 양성에 앞장서왔다. 중장년층에게 교육·학·평생교육 학습이 큰 힘이 된다고 보는 그는 “신중년의 평생학습은 단순 재훈련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과 기술을 재설계해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이며 이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체계(NHRD)에서도 핵심축을 이룹니다. 이러한 재도약은 개인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적 효과도 분명합니다”라고 강조한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있다. 정민승 방송대 교수(교육학과)는 교재 『생애발달과 교육』에서 “성인중기에 들어서면서 성인들은 인지능력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타고난 지능인 ‘유동성 지능’은 점차 감소하나 경험, 교육 등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지식 체계인 ‘결정성 지능’이나, 문제해결 전략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실제적 지능’은 감소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간제 입학생 모집

### 시간제등록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대학 정규 학생이 아니라도 학부 개설 교과목을 수강하고 성적을 취득하여 이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사학위(교육부장관 명의) 취득 가능

신청 학과	현재 개설되어 있는 22개 학과 ※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접수 기간	2026. 7. 8.(수) 09:00 ~ 7. 14.(화) 18:00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 부속서류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제3자 제출
합격자 발표	2026. 7. 24.(금) 9:30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입학생 모집

### 재입학이란

우리 대학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학생이 제적 전의 학점 등을 인정받고 동일 학과에서 중단된 학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잔여 학점취득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하는 제도

신청 학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전학과
신청 대상	우리 대학 학사과정 제적생으로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 제적된 자
신청 기간	2026. 5. 29.(금) 09:00 ~ 6. 30.(화) 24:0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승인	재입학 승인 및 발표일 : 2026. 7. 10.(금)

# 학생모집

방송대 24개 학과 졸업 후 진로

## ‘먼저 온 미래’ 실현하는 24개 ‘희망 사다리’

###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 본교 문예창작콘텐츠학과를 비롯하여 관련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음
- 언론사, 출판·광고업계, 기업체 홍보부서 등에서 일할 수 있음
- 별도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어 교사, 독서 지도사, 문예 지도사, 문학관 학예사, 작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영어영문학과

- 국내외의 영미어문학 대학원, 통번역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음
- 국제무역, 공교육 및 사교육, 언론, 출판, 통번역 등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음

#### 중어중문학과

- 국내기업, 중국어 교육기관 또는 중국 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본교 대학원 및 통·번역대학원 등으로 진학할 수 있음

#### 프랑스어문화학과

- 통·번역, 언론, 출판, 금융, 교육, 예술, 관광, 종교, 무역, 외교, 개발협력, 전문기술영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의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며, 대학원의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에 진학 가능

#### 일본학과

- 일본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원 또는 교육대학원, 통·번역대학원 등으로 진학의 길도 열려 있음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졸업 후에는 입법고시,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와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다양한 자격시험을 통해 공직에 진출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 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음. 또한 방송대를 비롯한 국내외 대학원의 진학을 통해 보다 심화된 학문 연구를 이어갈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에 진학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모색할 수도 있음

#### 행정학과

- 대학원 및 연구기관에 진출하여 다양한 공공부문의 문제들을 연구
- 각종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진출
- 시민단체나 국제기구 등 비정부기구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 경제학과

- 공무원, 대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 취업, 대학원(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및 MBA 과정 진학

#### 경영학과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금융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및 전문경영인

#### 무역학과

- 민간 및 공공기업체, 금융기관, 정부 각 부처, 일반 무역회사, 종합상사 등 취업
- 관세사, 경영지도사,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등 무역관련 전문가

- 금융, 유통, 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 글로벌 투자와 자산관리 전문가
-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스마트 창업, 비즈니스 경영자
-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진학

#### 미디어영상학과

- 방송, 광고·홍보, 영화, 멀티미디어 등 미디어영상 및 언론 관련 분야로 진출하거나, 동대학원의 영상문화콘텐츠학과를 비롯하여 언론대학원, 영상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등 관련 전공 분야 대학원에 진학

#### 도시콘텐츠·관광학과

- 관광산업 분야: 여행사, 항공사, 호텔, 테마파크, 외식업체, 국제회의업체 등
- 관광개발 분야: 관광개발업체, 컨설팅업체 등
- 관광해설 분야: 문화관광해설, 자연자원해설, 국내여행안내, 국외여행안내, 관광통역안내 등
- 도시콘텐츠 분야: 도시재생관련 기업, 도시 및 도시콘텐츠 관련 컨설팅 업체, 부동산 개발 업체, 공인중개사 등

#### 사회복지학과

- 공공부문(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 등)
- 민간부문(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아동·청소년·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정신보건시설, 학교사회복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도서관, 자원봉사 단체와 NGO단체, 국제기구, 사회복지관련 직능단체 등)



### 자연과학대학

#### 농학과

- 귀농, 대학원 진학, 농촌진흥청과 산하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등 각종 공무원 시험 응시, 종자회사, 사료회사, 농산물가공회사 및 생명공학, 스마트팜 관련 기업체에 취직, 각종 자격시험 응시

#### 생활과학부

- 가정복지상담학전공: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아동·가족 및 소비자업무 관련 복지기관 종사 전문인력 등
- 식품영양학전공: 학교·병원·공공기관·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 식품·외식업계 전문가, 보건·위생·식품영양 분야의 연구 및 실무 종사자 등
- 의류패션학전공: 의류와 소재의 생산과 유통,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패션MD와 바이어, 패션 및 텍스타일 디자이너, 사회교육기관의 의류패션분야 교육자, 문화예술교육기관 또는 문화시설 교육자 및 교육행정자, 공방 창업가 등

#### 컴퓨터과학과

- 연구소, 관공서, 금융기관 및 국영기업체,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전문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등에 진출

#### 통계·데이터과학과

- 데이터로부터 통찰을 얻는 데이터분석과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많은 기업과 정부에서도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

하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졸업 후 통계학 기반의 데이터과학 및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음

#### 보건환경안전학과

- 보건관리 분야: 병원·보건 관련 직종, 건강 증진·관리 관련 직종,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건관리 부서, 보건 컨설팅 및 연구기관, 보건 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환경관리 분야: 환경오염방지 시설 업체, 환경설계 용역업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환경관리 부서, 환경영향평가 기관, 환경 컨설팅 및 연구기관, 환경 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환경관련 비영리단체(NGO)
- 산업안전보건관리 분야: 건설·조선·화학플랜트 산업 등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산업안전 보건관리 부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및 연구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간호학과

- 졸업 후에는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 대학원 진학은 물론 보건의로 분야의 다양한 직종에 진출할 수 있음
- 변화된 간호 환경을 이해하고 최신 임상실무 역량을 갖추으로써 간호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의 보건으로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음

### 교육과학대학

#### 교육학과

- 평생교육사: 공공 및 민간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직무 수행
-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 취업: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
- 대학원 진학: 교육 관련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 초등돌봄교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독서지도사, 문해교사, 평생학습마을 매니저, 기업교육 등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교육전문가로 활동

####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청소년 활동, 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상담실 및 기타 상담기관 등에서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
- 청소년학습·진로지도 전문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청소년 학습 지도업무를 수행
- 보호·복지 전문가: 청소년쉼터, 교육복지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문제상황 전환 업무를 수행
- 대학원 진학: 청소년 관련 특정분야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 청소년교육 전문강사: 성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전문 영역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

수행

- 지역사회·마을교육 전문가: 지역사회·마을교육 장면에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 참여와 꿈찾기, 길찾기, 진로교육 활동 수행

#### 유아교육과

-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기관의 취업
- 대학원 진학: 유아교육 전공분야 심화 연구
- 교육공무원 임용: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후 국공립유치원 임용고시 응시

#### 문화교양학과

- 첨단 정보화시대 문화콘텐츠 개발 영역 전 분야: 방송작가, 프로듀서, 문필가, 언론 및 여론 조사 분야, 만화 작가 등
- 출판 및 교육계: 출판기획, 예체능 교사, 논리논술 교사, 광고업

#### 생활체육지도과

- 스포츠 현장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및 재활 트레이너 등
- 스포츠 행정관리자: 스포츠산업 연구원, 체육행정자, 프로스포츠구단 실무자, 스포츠공기업 및 체육단체 실무자, 스포츠마케터, 체육시설 관리자, 스포츠 에이전트 등
- 체육계열 대학원 진학

# 학생모집

방송대는 전국이 강의실

## 원격·면대면 수업 받을 수 있는, 전국 13개 교육 네트워크

### 지역대학이란?

전국 13개 시·도의 지역대학과 22개 주요 시·군에 별도의 학습관을 두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전국이 강의실입니다.

지역대학 어디서든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든 학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원격영상강의실과 도서관, 튜터제도 등 차별화된 교육환경으로 학습능률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민교양강좌, 독서토론회 활동 등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센터로 해당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역대학에서는

**입학지원서 접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까운 지역대학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석수업** 지역대학의 출석수업을 통해 면대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각종 시험, 성적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지역대학에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성적처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다양하고 실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도서관 및 전산실습실** 온라인 학습의 효율을 높여주는 원격영상강의실과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 및 동아리 운영 지원**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문화를 즐기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회 활동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습자료 제공**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방** 자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유아방을 운영하고 있어 재학생들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학업 집중도 향상을 돕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목적

#### 국가 인재 양성

####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의 측면에서 경제, 지리, 연령 등의 이유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격교육 방법으로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 국민교육의 수준 향상

일반 교양교육과 더불어 각종 직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국민교육의 수준 향상에 기여

#### 사회교육의 확대 발전

국가사회 발전과 산업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위한 사회교육의 확대 발전 도모

#### 분야별 인재 양성

계속 교육을 통하여 급속히 변천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국가에 필요한 분야별 인재 양성에 이바지

## 전국 재학생 분포현황

전국총학생수 89,857명

(2026. 4. 1. 학부 등록생 기준)



◆ 학습센터  
 ■ 시·군학습관(출석수업 시행)  
 ● 시·군학습관(출석수업 미시행)  
 ※ 지역대학 및 출석수업 시행 학습관: 소속 학생 수  
 ※ 출석수업 미시행 학습관: 주소지 기준 학생 수

## 즐거로운 방송대 생활의 첫걸음은 위클리 구독!



방송대학보 <KNOU 위클리>는 수업·시험·자격증 정보와 교양·학술 소식을 게재하고 있어 방송대 학업에 필수입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꼭 구독하세요!

- 구독 대상** 재학생 및 동문, 일반인
- 구독 신청** 위클리 홈페이지 구독 안내 → 구독 바로가기 → 신청  
 동문 및 일반: 상시 위클리 홈페이지 (weekly.knou.ac.kr)에서 신청 가능



QR을 확인하시면 위클리 구독 신청 페이지가 연결됩니다.

※ 주변 지인들에게 위클리 구독을 권유해주세요 학보 구독 문의 1644-1232

## 투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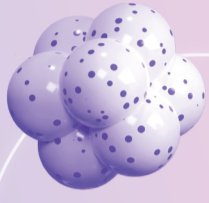
- jebo@knou.ac.kr로 원고를 보내주세요.
- 'KNOU광장'에 게재되는 분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 KNOU 위클리

창간	2019년 3월 4일	홈페이지	weekly.knou.ac.kr
발행인	김종오	편집인	김진경
발행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쇄처	중앙일보(주)
구독·광고 문의	02-3668-4287	대표 전화	1644-1232
구독료	6개월 20,000원 / 1부 1,000원	기사 제보	jebo@knou.ac.kr
특수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다50583(주간) / 등록일 2019년 3월 22일	주소	(우)03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00%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융합경영학부  
회계금융전공



첨단공학부  
AI전공



첨단공학부  
메카트로닉스전공



융합경영학부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첨단공학부  
산업공학전공

2026학년도 2학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2026. 6. 8. | 월 | - 7. 7. | 화 |

1661-3090

